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⑤ 07. ⑤ 08. ③ 0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① 20. ②

1. 민간 경제의 순환 이해

정답 해설: 임금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가)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민간 경제 주체 A는 가게이고,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민간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② 기업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가게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 ③ 기업과 달리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 요소이다.
- ⑤ ㉡은 임금, 이자, 지대 등 생산 요소 구입에 대한 대가이다. 가족 휴가를 위한 여행 상품 구입에 대한 지출은 생산물에 대한 소비 지출이다.

2. 시장 실패의 원인 이해

정답 해설: ⑤ 가로등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해 이윤 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며, 공해상의 수산 자원과 같은 공유 자원의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해 남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로등 서비스와 공해상의 수산 자원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은 모두 재화와 서비스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④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시장의 진입 장벽, 기업 간 가격 담합은 제시된 사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3. 기업의 합리적 선택 이해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의 정보를 통해 □□ 재단의 A 공연과 B 공연에 대한 1회당 예상 총비용, 공연 표 예상 판매량, 책정한 공연 표 가격, 1회당 실제 총비용, 1회당 실제 평균 수입, 1회당 실제 평균 이윤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공연	B 공연
1회당 예상 총비용(만 원)	100	200
1회당 공연 표 예상 판매량(장)	50	100
책정한 공연 표 가격(만 원)	2	2
1회당 실제 총비용(만 원)	100	180
1회당 실제 평균 수입(만 원)	120	160
1회당 실제 평균 이윤(만 원)	20	-20

② □□ 재단은 총수입이 총비용과 일치하도록 표의 가격을 결정한다. □□ 재단은 B 공연이 전석(100석) 매진될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1회당 예상 총비용은 200만 원(=소극장 운영 비용 100만 원+저작권 사용료 100만 원)이다. 따라서 B 공연 표의 가격은 2만 원(=200만 원÷100장)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A 공연 표의 가격은 2만 원(=100만 원÷50장)이다.
- ③ A 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1회당 평균 이윤은 20만 원이다.
- ④ B 공연의 1회당 총비용은 180만 원(=소극장 운영 비용 100만 원+저작권 사용료 80만 원)이고, 1회당 총수입은 160만 원(=2만 원×80장)이므로, 손실은 1회당 평균 20만 원 발생한다.
- ⑤ B 공연 표가 1회당 평균 80장 판매될 것으로 정확히 예측되었다면, 1회당 총비용은 180만 원(=소극장 운영 비용 100만 원+저작권 사용료 80만 원)이다. 따라서 B 공연 표의 가격은 2만 2천 5백 원(=180만 원÷80장)이다.

4. 가격 규제 정책의 이해

정답 해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는 재화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는 경우 A와 같이 정책 시행 이전 대비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시장 거래량은 감소하며, 실효성 있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경우 B와 같이 정책 시행 이전 대비 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 거래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가)는 최저 가격제이고, (나)는 최고 가격제이다. ④ 실효성 있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경우 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가)는 최저 가격제이다.
- ② 실효성 있는 최저 가격제가 시행되는 경우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③ 실효성 있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경우 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⑤ 실효성 있는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모두 정책 시행 이전 대비 정책 시행 이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5.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 해설: ㄱ. 소비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일정액의 추가 편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X재 시장에서는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정부 개입 전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70달러이고, 시장 균형 거래량은 70개이다. 정부가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 총액이 1,600달러(=20달러×80개)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 결과 시장 거래량이 80개가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래량은 70개에서 80개로, 10개 증가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80달러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따라서 시장 판매 수입은 4,900달러(=70달러×70개)에서 6,400달러(=80달러×80개), 1,500달러 증가한다.

ㄹ. ㉠이 현재 수준의 50%로 감소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 달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현재 수준보다 감소하므로 사회적 최적 거래량 달성을 위해 지급해야 할 보조금 총액은 감소한다.

6. 경제 체제의 유형별 특징 이해

정답 해설: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모두에서 발생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만 보장된다. 따라서 두 번째 학생만 옳은 대답을 하였다. 생산 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법의 결정이 가격 기구에 의해 이루어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므로, B는 시장 경제 체제, A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⑤ 기업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즉 생산 방법과 관련된 경제 문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 ② 정부의 계획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 ③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강조된다.
- ④ ㉠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7.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이해

정답 해설: GDP 디플레이터는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이며,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로 나타낸다.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별 실질 GDP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1년	t+2년	t+3년
실질 GDP(억 달러)	25	100	300	200

⑤ 실질 GDP는 t+3년이 t+2년보다 작다. 따라서 t+3년의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을 갖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t년의 명목 GDP는 50억 달러, 실질 GDP는 25억 달러이다.

② t+1년에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은 $100\% = \frac{100\text{억 달러} - 50\text{억 달러}}{50\text{억 달러}} \times 100$ 이고,

실질 GDP 증가율은 $300\% = \frac{100\text{억 달러} - 25\text{억 달러}}{25\text{억 달러}} \times 100$ 이다.

③ 전년 대비 t+2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하였으므로 t+2년의 화폐 가치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④ 실질 GDP는 t+1년에 100억 달러, t+2년에 300억 달러이다.

8.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이해

정답 해설: 근로 소득 이외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경상 소득)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경상 소득은 5,000만 원이다. ③ 소득 분석과 소비 분석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비경상 소득 1,000만 원, 소득 6,000만 원, 저축 1,000만 원, 처분 가능 소득 4,000만 원, 소비 지출 3,000만 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근로 소득은 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② 경조금으로 인한 소득은 비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갑의 비경상 소득은 1,000만 원이므로 경조금으로 인한 소득은 1,100만 원이 될 수 없다.

④ 비소비 지출은 2,000만 원(=소득 6,000만 원-처분 가능 소득 4,000만 원)이고, 저축은 1,000만 원이다.

⑤ 소비 분석 자료의 지표 비율이 유지되고 소득이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가한다면, 저축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한다.

9. 국내 총생산의 계산

정답 해설: GDP는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의 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부가 가치는 '판매 수입-중간재 구입 비용'이다. 2023년 갑국 A, B 기업의 판매 수입, 부가 가치, 생산비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 달러)

구분		A 기업	B 기업
판매 수입		1,000	1,000
부가 가치		1,000	700
생산비	임금	100	100
	중간재 구입 비용	0	300

④ 갑국의 수출은 500억 달러, 수입은 300억 달러이므로 순수출은 200억 달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각 기업이 창출한 부가 가치는 A 기업이 1,000억 달러, B 기업이 700억 달러이다.

② 각 기업의 이윤은 A 기업이 900억 달러, B 기업이 600억 달러이다.

③ 갑국의 중간재 구입 비용은 300억 달러이다.

⑤ 갑국의 GDP는 1,700억 달러이다.

10. 합리적 선택의 이해

정답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이다. B와 C 상품에 대한 행사 전과 행사 후 갑의 선택에 대한 편익과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B의 가격에 대한 20% 할인과 C의 설치비 면제 행사 실시 전>

(단위: 만 원)

구분		A	B	C
편익		㉠	40	㉡
명시적 비용	가격	30	㉢	35
	설치비	0	3	5
암묵적 비용		37-㉢ 또는 ㉡-40	㉠-30	㉠-30

<B의 가격에 대한 20% 할인과 C의 설치비 면제 행사 실시 후>

(단위: 만 원)

구분		<1안>	<2안>	<3안>
편익		㉠	(40+25)이하	(㉡+25)이하
명시적 비용	가격	0	㉢×0.8	35
	설치비	0	3	0
암묵적 비용		{62-(㉢×0.8)} 이하	㉠	㉠ 또는 {62-(㉢×0.8)}이하

ㄴ. B와 C 상품에 대한 행사가 시작되기 전 A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므로 A 선택의 순편익은 양(+)의 값, 즉 '㉠ > 67-㉢' 또는 '㉠ > ㉡-10'이다. 따라서, ㉠이 '39'이면 ㉡은 '48'이 될 수 있다.

ㄷ. B와 C 상품에 대한 행사 후 <3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 ' <3안> 선택의 편익'이 ' <3안> 선택의 기회비용(= <3안> 선택의 명시적 비용+ <3안> 선택의 암묵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 <3안>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3안> 대신 <1안> 또는 <2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 즉, ' <1안> 선택의 편익- <1안> 선택의 명시적 비용' 또는 ' <2안> 선택의 편익- <2안> 선택의 명시적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3안>이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 <3안> 선택의 편익- <3안> 선택의 명시적 비용'인 (㉡-10)만 원 이하가 ' <1안> 선택의 편익- <1안> 선택의 명시적 비용'인 ㉠만 원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갑이 A~C로부터 얻는 편익은 변함이 없고, '㉠ > ㉡-10'이므로 ' <1안> 선택의 편익- <1안> 선택의 명시적 비용'이 ' <3안> 선택의 편익- <3안> 선택의 명시적 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3안>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으므로 ㉢에 관계없이 <3안>은 선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B와 C 상품에 대한 행사가 시작되기 전 A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므로 이때 A 선택의 순편익은 양(+)의 값, 즉 $\textcircled{7} > 67 - \textcircled{9}$ 또는 $\textcircled{7} > \textcircled{9} - 10$ 이다. $\textcircled{7} + \textcircled{9} > 67$ 이므로, $\textcircled{7}$ 과 $\textcircled{9}$ 의 합은 '66'이 될 수 없다.

ㄷ. $\textcircled{7}$ 과 $\textcircled{9}$ 이 각각 '35'이면 <1안>은 편익이 35만 원, 암묵적 비용이 최대 34만 원으로 <1안>의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경우 값은 <1안>을 선택한다.

11. 비교 우위의 이해

정답 해설: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재 1개이고, 교역 전 X재 소비량이 20개, Y재 소비량이 10개이므로 갑국의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30개이다. 교역 후 갑국의 X재 소비량이 20개, Y재 소비량이 20개라는 것은 갑국이 을국과의 교역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X재만 30개를 생산한 후 을국에 X재 10개를 수출하고, 을국으로부터 Y재를 20개 수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은 1:2이다. ①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1:2일 때 양국이 모두 이득이 발생하므로, 을국의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개보다 작다.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이 같고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30개이고, 을국이 30개보다 적으므로, 갑국이 X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갑국의 Y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30개이다.
- ③ Y재에만 특화하는 을국은 갑국과의 교역을 통해 X재 10개를 수입하였다. 을국의 교역 후 X재 소비량은 교역 전과 같고, 교역을 통해 양국 모두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을국의 Y재 소비량은 교역 이전의 소비량인 40개보다 많다.
- ④ 비교 우위에 따른 교역으로 교역 당사국 간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역으로 인해 비교 우위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국의 교역 후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감소하였고,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였다.
- ⑤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은 1:2이다.

12. 시장 균형의 변동 이해

정답 해설: 균형점 E는 공급이 감소할 경우 A점, 수요가 증가할 경우 B점, 수요가 감소할 경우 C점, 공급이 증가할 경우 D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③ Y재의 생산 기술 혁신으로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이는 Y재와 보완 관계에 있는 X재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B점에서의 이동 요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X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는 수요 변동 요인이므로 B점 또는 C점에서의 이동 요인이다.
- ② X재의 공급자 수가 감소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하여 X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Z재의 수요를 증가시켜 Z재의 거래량 증가 요인이다.

로 작용한다.

④ Y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Y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는 Y재와 보완 관계에 있는 X재의 수요를 감소시켜 판매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⑤ Z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Z재의 공급이 감소하여 Z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Z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증가시키므로 B점에서의 이동 요인이다.

13. 고용 지표의 이해

정답 해설 : 갑국 A, B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를 100만 명으로 가정한 후,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t년과 t+10년의 갑국의 지역별 고용 관련 인구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만 명)

구분	t년		t+10년	
	A 지역	B 지역	A 지역	B 지역
15세 이상 인구	100	100	100	100
취업자 수	72	46	74	69
실업자 수	8	4	6	6
비경제 활동 인구	20	50	20	25

③ 갑국 전체 실업자 수는 t년(8만 명+4만 명)과 t+10년(6만 명+6만 명)이 각각 12만 명으로 같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t년에 갑국 전체 15세 이상 인구는 200만 명이고, 취업자 수는 118만 명이므로, 고용률은 59%이다.

② t+10년에 취업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고, 실업자 수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따라서 실업률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낮다.

④ A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t년과 t+10년이 같고, A 지역의 취업자 수는 t년보다 t+10년이 많으므로 t년 대비 t+10년의 고용률은 상승하였다.

⑤ 갑국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는 t년이 70만 명, t+10년이 45만 명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10년 갑국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는 50%보다 적게 감소하였다.

14. 잉여의 이해

정답 해설: 소비자 갑, 을, 병은 X재 시장 가격보다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커서 거래에 참여할 것이다. 이때 소비자 잉여(=최대 지불 용의 금액-시장 가격)는 갑이 500원, 을이 300원, 병이 100원이다. X재 시장의 총잉여가 2,000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생산자 잉여(=시장 가격-최소 요구 금액)는 1,100원(=총잉여 2,000원-소비자 잉여 900원)이다. 생산자 A와 B의 생산자 잉여를 합치면 900원이고, D와 E는 생산자 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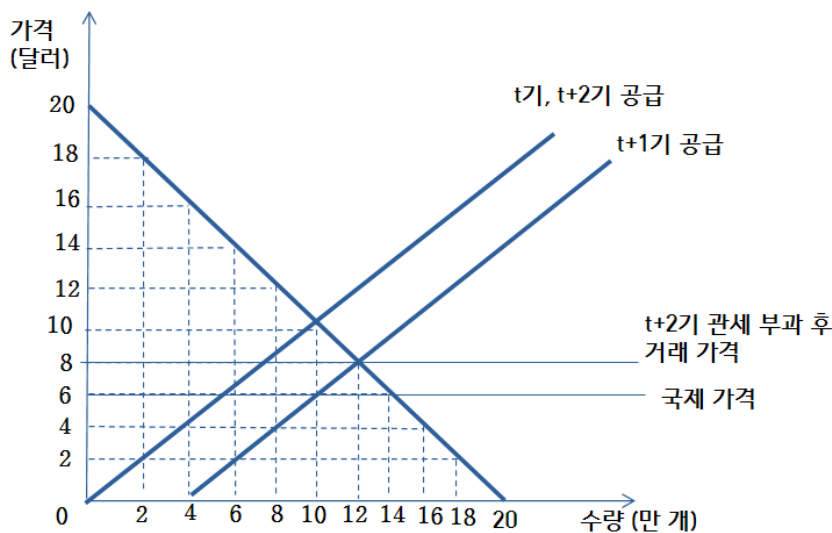
가 0이므로 C의 생산자 잉여는 200원이다. ⑤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100원의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의 최소 요구 금액은 A가 600원, B가 700원, C가 900원, D와 E가 1,100원을 초과하고, 소비자 갑~무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변함이 없다. 이 때 거래 당사자는 갑~병, A~C로 이전과 동일하므로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C의 생산자 잉여(㉠)는 200원이고, 을의 소비자 잉여는 300원이다.
- ② 갑은 X재를 구입하고 무는 구입하지 않는다.
- ③ 시장 판매 수입은 3,000원이고 전체 소비자 잉여는 900원이므로, 전체 소비자 잉여는 시장 판매 수입의 50% 미만이다.
- ④ A의 생산자 잉여가 가장 크다는 것은 A의 최소 요구 금액이 가장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이해

정답 해설 : 시장 개방 전 갑국의 X재 균형 가격은 10달러, 균형 거래량은 10만 개다. t기부터 국제 가격에서 X재를 수입하다가 t+1기에는 X재 1개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국내 생산량이 10만 개, 수입량이 4만 개가 되었으므로, t+1기 갑국 소비자의 X재 소비량은 총 14만 개다. 또한, t+2기에 t+1기의 수입량(4만 개)이 유지되기 위해선 X재 1개당 2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X재 시장 상황을 그래프와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거래 가격(달러)	국내 생산량(만 개)	수입량(개)
t기	6	6	8
t+1기	6	10	4
t+2기	8	8	4

③ 수입액은 t+1기가 24만 달러로 t기(48만 달러)보다 24만 달러 적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② t기와 t+1기에 갑국 X재 수요 곡선은 변함이 없고, 국제 가격 수준에서 거래되므로 갑국 X재 소비자의 소비량은 t기와 t+1기가 같다. t+1기에 갑국 X재 소비자의 소비량은 14만 개(=국내 생산량 10만 개+수입량 4만 개)이므로 국제 가격은 6달러이다. 또한, 국제 가격인 6달러 수준에서 t+1기에 갑국의 국내 생산량이 10만 개가 되려면 국내 X재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4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④ t+2기의 관세 수입은 8만 달러(=2달러×4만 개)이다.
- ⑤ 국내 생산량은 t+1기가 10만 개, t+2기가 8만 개다.

16.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이해

정답 해설: 갑국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반면 수출 부진으로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총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이, 을국에서는 소비 지출의 증가로 고용은 늘어났지만 극심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수요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총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는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국의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갑국에서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총수요 감소는 실질 GDP 감소 요인이고, 총수요 증가는 실질 GDP 증가 요인이다. 갑국에서는 실질 GDP 감소를 동반한 경제 문제가, 을국에서는 실질 GDP 증가를 동반한 경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③ 실업률 상승의 발생 요인으로 총수요 감소를, 극심한 물가 상승의 발생 요인으로 총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 ④ 소득세율 인상은 총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실업률 상승 문제를 개선하는 재정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환율 변동의 이해

정답 해설 : 전기 대비 t기에 달러화 표시 임금 변화율이 원화 환산 임금 변화율보다 작으므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하였고, 전기 대비 t+1기에 달러화 표시 임금 변화율이 원화 환산 임금 변화율보다 크므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하였다.

- ④ 전기 대비 t+1기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하였다. 이는 미국인의 갑국 여행 경비 부담 증가 요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② 전기 대비 t기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것은 t기의 원/달러 환율은 전기에 비해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요인이다.

③, ⑤ t+1기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전기에 비해 상승하였다. 이는 갑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황 부담 감소 요인이다.

18. 단리와 복리의 이해

정답 해설 : 단리는 예금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므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동일하다. A의 t년 이자가 100만 원이고, 만기 시 원리금이 1,300만 원(=원금 1,000만 원+이자 300만 원)이라는 것은 t+1년과 t+2년의 이자도 일정하게 100만 원씩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따라서 A는 예치한 원금에만 이자가 계산되는, 단리가 적용된 정기 예금 상품이고, B는 예치한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계산되는, 복리가 적용된 정기 예금 상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A와 B에 예치한 원금이 같고 3년 만기 시 원리금이 같으므로 복리가 적용되는 정기 예금 B의 연 이자율은 A보다 낮다.
- ③ 연 이자율이 복리인 정기 예금 상품의 이자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만약 ㉠이 '100'이라면 3년 만기 시 B의 원리금이 1,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은 '100'이 될 수 없다.
- ④ ㉠은 '100'이다. ㉠이 '100'이라면 3년 만기 시 B의 원리금은 1,300만 원이 될 수 없다.
- ⑤ ㉠에서 ㉡으로의 증가율은 영(0)이고, ㉡에서 ㉢으로의 증가율은 양(+의 값)이다.

19. 경상 수지의 이해

정답 해설: 갑국과 을국 간, 갑국과 병국 간에만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국의 경상 수지 항목별 수취액(지급액)은 을국과 병국의 경상 수지 항목별 지급액의 합(수취액의 합)과 같다. 제시된 자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2023년 갑국의 경상 수지 항목별 지급액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억 달러)

구분	외화 수취액	외화 지급액
상품 수지	70	60
서비스 수지	30	55
본원 소득 수지	50	50
이전 소득 수지	20	15

① 갑국의 서비스 수지 수취액이 30억 달러이고 갑국의 서비스 수지가 25억 달러 적자이므로, 갑국의 서비스 수지 지급액은 55억 달러이다. 이는 을국의 서비스 수지 수취액(㉠)과 병국의 서비스 수지 수취액(㉡)을 더한 값과 같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갑국의 상품 수지는 10억 달러 흑자, 이전 소득 수지는 5억 달러 흑자이다.

- ③ 해외 무상 원조금이 포함되는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갑국의 이전 소득 수지는 5억 달러 흑자이다.
- ④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서비스 수지이다. 을국과 병국 서비스 수지의 외화 지급액의 합은 갑국의 서비스 수지의 외화 수취액(30억 달러)와 같다.
- ⑤ 갑국과 을국 간, 갑국과 병국 간에만 국제 거래를 하는 경우 갑국~병국 경상 수지의 합은 영(0)이 될 수밖에 없다. 2023년 갑국과 을국의 경상 수지가 모두 적자이므로 병국의 경상 수지는 흑자이다. 따라서 병국의 경상 수지는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

20. 금융 상품과 투자의 이해

정답 해설: t 시점에 갑의 보유 자산을 300만 원으로 가정한 후, t+1년 시점의 갑의 정기 예금 자산 110만 원 $\{=100만 원+(100만 원 \times 0.1)\}$ 을 기준으로 <상황 1>과 <상황 2>의 갑의 자산 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1>에서 갑의 자산 대비 정기 예금의 구성 비율이 44% $\{=(110만 원 / 자산 총액) \times 100\}$ 이므로 <상황 1>의 경우 t+1년 시점 갑의 자산 총액은 250만 원 $\{=(110만 원 \times 100) \div 44\}$ 이고, <상황 2>에서는 갑의 자산 대비 정기 예금의 구성 비율이 22% $\{=(110만 원 / 자산 총액) \times 100\}$ 이므로 <상황 2>의 경우 t+1년 시점 갑의 자산 총액이 500만 원 $\{=(110만 원 \times 100) \div 22\}$ 이다. 따라서 t+1년 시점에 투자가 종료될 경우 각 상황별 갑의 자산 및 총자산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만 원)

구분	<상황 1>	<상황 2>
정기 예금	110	110
주식	50	300
채권	90	90

② 채권은 t 시점 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t+1 시점 <상황 1>, <상황 2> 각각 채권 자산은 9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각각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과 채권이다. 주식과 채권이 갑의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황 1>에서는 t 시점보다 낮아지고, <상황 2>에서는 t 시점보다 높아진다.
- ③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이다. 주식 수익은 <상황 2>가 <상황 1>보다 많다.
- ④ 갑의 투자 수익은 <상황 2>가 <상황 1>보다 많다.
- ⑤ <상황 1>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모두 음(-)의 값이고, <상황 2>에서는 주식의 투자 수익률은 양(+의 값,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음(-)의 값이다. 또한, <상황 2>에서 주식 투자의 수익이 채권 투자의 손실보다 크다. 이 경우 전 자산을 주식과 채권에 절반씩 투자한다면, <상황 1>과 <상황 2> 간 투자 수익 차이는 ㉠의 경우에 비해 커진다.